

광주·제주 초등생들 '5·18, 4·3 민주·인권 캠프' 진행



광주와 제주 초등학생들이 광주 5·18과 제주 4·3 사건의 정신을 계승하고 체험하는 캠프를 진행했다. <사진> 광주동부교육지원청과 제주시교육지원청은 최근 광주와 제주 초등학생 60명 대상으로 광주시 일대에서 '2023년 5·18민주화운동 및 제주 4·3민주·인권·평화체험캠프'를 진행했다. 이번 캠프는 지난 4~5월에 진행된 지역 교류학습인 온라인수업과 6월 15~16일 제주특별자치도 일대에서 진행한 1차 캠프 이후의 만남이다. 행사는 5·18민주화운동과 제주 4·3의 정신과 가치를 기억하도록 다양하고 알찬 프로그램으로 구성

됐다. 학생들은 5·18 법정·영장 체험, 오월 주먹밥 만들기, 전일빌딩245, 구도청 일대 등 5·18민주화운동 현장 방문 등 다양한 체험 활동을 했다. 무등산 생태체험활동, '민주·인권·평화를 기억하다'를 주제로 한 평화유치코스, 국립 5·18민주묘지 참배 행사도 열었다. 광주동부교육지원청 정성숙 교육장은 "광주와 제주 학생들이 앞으로 민주·인권·평화의 감수성을 키워 바람직한 민주시민으로 자라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대한사회복지회, 새벽팍과 나눔 실천 업무 협약



대한사회복지회(회장 강대성)는 30일 광주 영아 일시보호소에서 농업법인 ㈜새벽팍(대표 김의병)과 나눔 실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이날 협약식에서 ㈜새벽팍은 대한사회복지회 광주·전남 지역 산하시설 6곳에 김치100박스(10kg)도 전달했다. 이번 업무 협약 및 김치 후원으로 대한사회복지회 광주전남 소속 광주영아일시보호소 등 아동시설 3곳과 여성시설3곳 등 모두 6곳에 거주하는 아동(100명) 및 한부모 가족들(20여가정)이 새벽팍의 김치를 전달 받을 수 있게 됐다. 2003년 편지식품으로 창업한 ㈜새벽팍은 장성

에 대규모 김치 공장 설비를 갖추고 있으며 '한식대첩' 우승자 이미지 장인의 손맛이 깃든 김치 등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새벽팍 김의병 대표는 "온 가족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건강한 김치를 만드는 것이 새벽팍의 소명"이라며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아동들과 한부모 가정에게 도움을 주고, 앞으로도 대한사회복지회와 함께 나눔의 실천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대한사회복지회는 1954년 설립된 아동복지전문 사회복지법인으로 영유아·아동·장애아동·청소년·한부모가족·어르신 등 전국 25개 시설에서 소외아와 함께 하고 있다. /김미은 기자 mekim@

'하얀 전쟁' 소설가 안정효 별세



베트남 전쟁 참전 경험을 바탕으로 장편소설 '하얀 전쟁' 등을 쓴 소설가 겸 번역가 안정효(사진) 씨가 1일 별세했다. 향년 82세. 유족에 따르면 안씨는 투병하던 고인은 이날 오후 3시께 서울 시내의 한 병원에서 숨을 거뒀다. 1941년 서울에서 태어난 고인은 서강대 영문학 과를 졸업했으며 1964년부터 영자 신문 '코리아 헤럴드' 문화부 기자로 일하다가 군에 입대했다. 백마부대 소속으로 베트남 전쟁에 참전해 '코리아 타임스'에 '베트남 삽화'(Viet Vignette)를 연재하면서 서 베트남과 미국 신문, 잡지에도 기고했다. 이후 베트남 참전 경험을 바탕으로 1985년 계간 '실천문학'에 '전쟁과 도시'(하얀 전쟁)를 발표하면서 중단했고, '은마는 오지 않는다', '헐리우드 키드의 생애' 등 24권의 소설과 다양한 수필을 남겼다. 고인의 대표작은 영화로 만들어져 흥행에 성공한 '하얀 전쟁'이다. '은마는 오지 않는다', '헐리우드 키드의 생애' 등도 영화화됐다. 번역가로도 왕성히 활동한 고인은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의 '백년 동안의 고독'을 '문학사상'에 번역 연재한 뒤로 지금까지 약 130권에 달하는 번역서를 펴냈다. /연합뉴스

인사

- ◆광주시 ◇3급 전보 ▲자치행정국장 전은욱 ▲복지건강국장 정영화 ▲여성가족국장 김연선 ▲교통국장 김석옥 ▲군공항이전본부장 박갑수 ▲남구 전출 김순옥 ◇4급 전보 ▲대변인 신동하 ▲광주전략추진단장 전영복 ▲인사정책관 김대원 ▲예산담당관 김대정 ▲광역협력담당관 박승욱 ▲안전정책관 윤건열 ▲자연재난과장 신민석 ▲관광도시과장 윤창모 ▲선인 비서관 이문해 ▲비서실장 이영동 ▲세정과장 심인섭 ▲회계과장 이수빈 ▲민주보훈과장 강은순 ▲인권평화과장 김광수 ▲고령사회정책과장 손수지 ▲여성가족과장 전순희 ▲아동청소년과장 임애순 ▲환경보전과장 나병춘 ▲자원순환과장 이정신 ▲건설행정과장 백정엽 ▲대중교통과장 백은정 ▲군공항정책과장 박한용 ▲이전개발과장 정진국 ▲교육정책관 김동현 ▲노동일자리정책관 최대범 ▲청년정책관 오인창 ▲문화정책관 김성배 ▲문화유산자원과장 송영희 ▲경제정책과장 박신희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용만 ▲대의협력본부장 박신태 ▲광주경제자유구역청 사업지원부장 이인범 ▲광주시의회 전출 정종민 ▲기후대기정책과장 손인규 ▲물관리정책과장 최원석 ▲도시계획과장 박용수 ▲토지정보과장 송진석 ▲미래차산업과장 진용선 ▲로봇가전의료산업과장 안신걸 ▲종합건설본부 토목부장 이신 ▲보건환경연구원 식품의약품연구부장 서진중 ▲보건환경연구원 감염병연구부장 서정미 ▲상수도사업본부 수질연구소장 정숙경 ▲5·18 민주과장 정석희 ▲국제교류담당관 위가환 ▲외국인주인과장 주상현

- ◆전남도 ◇승진 ◇2급 ▲동부지역본부장 정찬균 ◇3급(국장급) ▲정책기획관 이상진 ▲문화융성국장 박우욱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행정개발본부장 곽준길 ◇4급(과장급) ▲여성정책지원관 진미선 ▲무안공항공화추진단장 최원호 ▲사회재난과장 오미경 ▲신성장산업과장 조재용 ▲스포츠산업과장 박호 ▲대학혁신추진단장 김세연 ▲통일플러스추진단장 김진선 ▲문화산업과장 김성원 ▲산림자원과장 강신희 ▲농업기술원 농업교육과장 김재전 ▲해양수산과학원 남부지부장 이영진 ▲해양수산과학원 서부지부장 전창우 ▲혁신도시지원단장 김지호 ▲RISE사업단장 송문정 ▲한국농어촌공사(파견) 조선희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파견) 곽부영 ◇전보 ◇3급(국장급) ▲일자리투자유치국장 위광환 ◇4급(준국장급) ▲비서실장 정광선 ▲인구청년정책관 오중우 ▲기업도시담당관 이상욱 ◇4급(과장급) ▲군형성과담당관 최병남 ▲안전정책과장 이병철 ▲자연재난과장 송광민 ▲관광개발과장 이상철 ▲장애인복지과장 정혜정 ▲해운항만과장 김현미 ▲수산유통가공과장 박상미 ▲건축개발과장 조병섭 ▲종무과장 장영철 ▲세정과장 이영춘 ▲고향사랑과장 강경문 ▲자치경찰총괄과장 김승희 ▲산림휴양과장 문미란 ▲전남도립대 사무국장 최정운 ▲농업기술원 운영지원과장 강희상 ▲인재개발원 교육운영과장 이명화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파견) 김기평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파견) 이정국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파견) 신동신 ▲전남테크노파크(파견) 나영수 ◇전출 ◇3급(국장급) ▲순천시 유현호 ◇4급(준국장급) ▲화순군 강종철 ▲영암군 민일기 ▲함평군 임만규 ▲완도군 김현철 ▲신안군 김재광 ▲전남도의회 강성운 ◇4급(과장급) ▲나주시 최용채

TV프로그램

3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Table with 4 columns: Channel (KBS1, KBS2, MBC, KBC/SBS), Program Name, and Time Slot. Lists various news and entertainment programs for the day.

EBS1

Table with 3 columns: Time Slot, Program Name, and Program Description. Lists EBS1 programs such as '왕초보 영어', '클래스 e', and '한국기행'.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7월 3일 (음 5월 16일 壬戌)
36년생 정해진 절차와 방법대로 행한다면 불평함은 없을 것이다. 48년생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딜레마에 빠져들 수도 있느니라. 60년생 한 곳에 집중시킨다면 통일성을 갖게 된다. 72년생 정신만 똑바로 차리고 있다면 다 헤쳐 나갈 수 있다. 84년생 시행 착오를 최소화 하라. 96년생 서로 간의 관계를 감안하라. 행운의 숫자 : 37, 83
37년생 주관에 사로잡힌다거나 과잉 판단을 한다면 손실이 따른다. 49년생 현대에 휘말려든다면 그 즉시 후회만 한다. 61년생 방심하는 바로 그 순간에 발생함을 알라. 73년생 임시 위상이니 부담 없이 임해도 된다. 85년생 현상 유지하는 데 그치게 될 가능성이 높다. 97년생 가는 곳마다 반기기 세상 살 맛 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49, 61
38년생 꽃피는 봄날을 맞이하리니 가히 경사라 할 만하다. 50년생 기다를 잡고 보면 의외로 쉬울 것이다. 62년생 여러 가지 경로를 가지면서 성과를 도출하는 국량이 이른다. 74년생 직접적인 방법으로 실행하는 것이 유효하다. 86년생 부당하다면 결코 용납하여서는 아니 된다. 98년생 별 희한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겠다. 행운의 숫자 : 24, 53
39년생 기다했다는 뜻이 때때부터 나타나리라. 51년생 폭 넓은 시각과 이해심이 길성을 부르리라. 63년생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 부분적인 수밖에 없다. 75년생 싫증이 난다고 해서 미룬다거나 바꾸어서는 아니 된다. 87년생 부합하기에는 상당한 거리가 있느니라. 99년생 계획적으로 처리하지 않으면 아니 될 쟁반이다. 행운의 숫자 : 06, 65
40년생 여러 경로를 통해서 들어올 것이다. 52년생 부단한 탐색과 준비가 궁극적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케 하리라. 64년생 정후들을 무시하지 않는다면 예견할 수 있으리라. 76년생 기분을 상하게 하는 이가 보인다. 88년생 우연한 만남 속에서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00년생 좁은 폭으로 길게 이어지리라. 행운의 숫자 : 41, 50
41년생 활기찬 하루가 될 것이다. 53년생 당래지사가 활기를 띠면서 대폭적인 진전을 보이겠다. 65년생 자기 확신에만 치우친다면 객관성을 상실할 수 있다. 77년생 길으로는 즐거움 체하겠지만 속마음은 불평하리라. 89년생 내버려두면 점차로 쇠하여 기력을 다 한다. 01년생 특별한 인연을 맺는 과정에 놓인다. 행운의 숫자 : 11, 63
42년생 불가피하다면 숙명으로 알고 수용하라. 54년생 피하려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개선해 보자. 66년생 양호한 단계에 이르게 되는 모양새다. 78년생 구색을 맞추다 보면 효율성이 하락할 수밖에 없다. 90년생 가벼운 언행이 시비로 비화될 수도 있다. 02년생 목표를 향해서 가까이 다가서는 것이 성사의 지름길이다. 행운의 숫자 : 05, 76
43년생 처음부터 오르지 않는 것이 마땅도 변하고 안전하겠다. 55년생 통례적인 절차에 따르는 것이 이로우리라. 67년생 생 입장에 따라서 관점이 완전히 달라질 것이니라. 79년생 무의미한 과정은 미련 없이 삭제하는 것이 유용하다. 91년생 주변의 기류에 영향을 받는다. 03년생 가까운 이로부터 피해를 볼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07, 58
44년생 거시적 관점의 실행이 절실하다. 56년생 현재의 실적만을 따질 것이 아니라 신념을 가지고 임하다 보면 보람이 있다. 68년생 주변의 상황에 휩쓸려 들어가고 있는 양태이다. 80년생 원리를 파악한다면 무리가 없을 것이다. 92년생 막연하다면 대단히 위험하다. 04년생 후회를 할 때는 이미 늦다고 봐야한다. 행운의 숫자 : 32, 68
45년생 아직은 때가 이르니 아무 생각 없이 앞만 보고 뛰어가는 것이 생산적이지 않다. 57년생 근본적인 문제는 자신으로부터 기인하고 있음을 알자. 69년생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현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81년생 표준과 전형에 따르는 것이 무난하겠다. 93년생 치밀하게 원인을 분석하자. 05년생 혁신적인 방안을 도모하라. 행운의 숫자 : 31, 80
34년생 효과와 기능을 배가하는 특별한 상황이 설정 되리라. 46년생 사소함을 차치하고 과단하다면 후회할 없을 것이다. 58년생 지금 상태로 내버려 둔다면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 미리 해법을 강구해 봐야 한다. 70년생 국민 타계에 매진해야겠다. 82년생 복이 눈앞에 와 있느니라. 94년생 쇠는 뜨거울 때 두드러라. 행운의 숫자 : 25, 66
35년생 범위가 넓어지거나 나는 위치로 조정될 수도 있다. 47년생 숙안은 금물이나 차분하게 생각 할 일이다. 59년생 실수한다면 커다란 손해로 이어질 수도 있겠다. 71년생 상대방의 대응이 있기 전에 선제함이 낫다. 83년생 숨은 뜻까지 파악할 수 있는 해안이 절실하다. 95년생 알고도 내버려 둔다면 큰 코 다친다. 행운의 숫자 : 09, 78